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5:11-24)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실 뿐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오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 둘째 아들의 요구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달리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와 가르침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는 자기 선택에 따른 것이지 남이 억지로 시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을 책임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둘째 아들의 삶

둘째 아들이 향한 곳은 아버지의 손길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먼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이 얼마 못 되어 다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까지 닥쳐왔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둘째 아들의 인생은 저 깊은 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자기 인생을 온전히 뜻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쾌락은 한순간일 뿐, 쾌락이 지나가면 그 대가로 건디기 힘든 고통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필요로웠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었던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괴롭긴 해도 고난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변화의 가능성, 회복의 길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죄를 회개한 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은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수치와 걱정,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찾갓을 치르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어떤 권리나 주장, 변명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아버지의 사랑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그런 둘째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단숨에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쳤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냄새났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악한 마음, 웅졸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크게 오해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둘째 아들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버지 집의 종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아버지 집의 종으로 대해 달라는 둘째 아들, 죄만 짓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럽게 대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둘째 아들은 먹을 게 없어 죽거나 살더라도 아버지 집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듯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요 1:12).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의 인생을
人生이 바뀐다

거룩한복음 권지현 집사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인생 간증

기쁨의교회는 예배 때에 예수님으로 변화된 간증을 발표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훈육하신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은 언제나 제 잘못을 바라보시는 분처럼 느껴졌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제 눈앞의 현실과 인간관계가 더 중요시 되고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은 제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고, 가정을 잘 세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통제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점점 늘어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반복되었고, 결국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의 허락 없는 외부 활동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누이를 통해 다시 듣는 말씀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메말라 있던 제 영혼에 말씀이 생명처럼 들어오기 시작했고, 돌아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환경을 먼저 바꾸

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던 제 영혼을 먼저 살리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문제와 제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며 이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 상황에서 나를 꺼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나를 만나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생각하였던 제가, 말씀을 통해 오히려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통해서 컴앤씨데이 예배를 시작으로 신앙하게 되면서 말씀은 저의 삶의 중심이 되어 갔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다시 세워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교회 알아가기와 교회생활 가이드는 단순한 교육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지만 결단처럼 되지 않던 제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와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크리모에서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는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연합함을 도와주시는구나'하고 믿음이 들어오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저를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제 안에 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주일 말씀을 통해 다했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의 골리앗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마치 국가적인 재앙처럼 여기며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 안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강하고 강한 몸술 자가 바로 나였구나. 내가 생각했던 국가적인 재앙이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붙들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길 원하고 부르짖으며 굴복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후 우리교회 알아가기를 통해 그 사랑을 실제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리로 저를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강의중 셀에 진정한 역할을 전도임을 들으며 컸기간 영혼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동역할 때 얼마나 살아있는 생명력과 은혜속에 거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영혼과 전도에 대한 열정과 갈증이 밀려오는 듯 했고 첫강의 입사한 회사의 모든 이를 전도하겠다고 결단했던 청년시절의 목사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었고 두 달 전 배드민턴을 하며 잠시 인연을 맺었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베트남 자매님의 얼굴을 제 마음에 계속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자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 우리 세쌍둥이 아이들과 자매님의 외동딸이 같은 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외동딸에게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셀에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힘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비록 삼림이라도 순종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개척의 일꾼이자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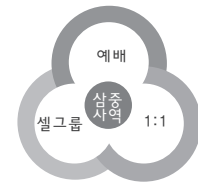
▶ 기쁨의 교회 뜻대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기쁨의교회 방송 설교 안내 - CTS TV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생명의 말씀
1) 케이블TV: 용인(기남방송 222번), 광주(C&M 700번) 2) IPTV: Sky Life 183번, KT olleh TV 236번, Btv 551번, U+ 180번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서울극동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1:45 ~ 11:55 / 빛을 따라서
극동 방송 서울,경기: 106.9 MHz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영동극동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1:30 / 오늘의 양식
극동 방송 강원 영동: 90.1 MHz

▶ 기쁨의 교회 사역전력



▶ 기쁨의 교회 오시는 길



▶ 대중교통 안내

- [지 하 철 / 버스]
- ▶ 신논현역 7번 출구 또는 강남역 5번 출구 → 1241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 동일하이빌차 하차
 - ▶ 구성역(수인분당선 GTX)3번출구 → 31, 33, 34-2, 670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 동일하이빌차 하차

현금 온라인 계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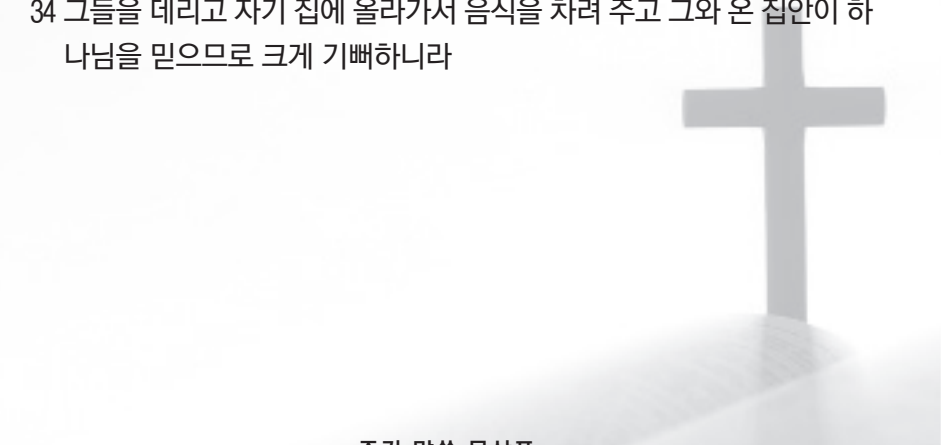
● 주일현금 : SC제일은행	572-20-230777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십 일 조 : KEB하나은행	630-006691-277	예금주 : 기쁨의교회
● 감사현금 : SC제일은행	572-20-308622	예금주 : 기쁨의교회
● 건축현금 : 국 민 은 행	402601-04-012600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선교현금 : SC제일은행	572-20-179152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카라건축 : SC제일은행	572-20-305118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카라일반 : SC제일은행	572-20-305129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카라장학 : SC제일은행	572-20-321620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주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25-34절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이르되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간 말씀 묵상표

월 (21)	화 (22)	수 (23)	목 (24)	금 (25)	토 (26)	주일 (27)
열왕기하 7:1-8	열왕기하 7:9-20	열왕기하 8:1-6	신명기 11:11-14	시편 65:9-13	시편 126:5-6	열왕기하 8:7-15

기쁨의교회와 MTC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기쁨의교회와 MTC(마르투스 훈련센터)를 처음 방문해 주신 새가족분들을 위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추석 주간 안내

- 이번주 24일(목) ~ 25일(금)까지 추석 명절로 인해 새벽예배와 금요HR예배는 없습니다.
- 추석가정예배 말씀지가 주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2. 29기 우리교회 일꾼세우기

- 29기 우리교회 일꾼세우기가 10월 11일(주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은 27일(주일)까지 온라인 행정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전체 성도 모임

- 전체 성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쉼키나채플에서 있습니다.

4. MARTUS WORSHIP(다음세대 찬양예배) 연기

- MARTUS WORSHIP 다음세대 찬양예배가 전체 성도 모임으로 인해 10월 4일(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5. 예배 후 퇴장 순서

- 쉼키나채플 3층 뒷좌석 / 쉼키나채플 3층 앞좌석 / 쉼키나채플 4층&자모실 순서로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우소식

- (소천) 김은희B 집사 부친상 사위 : 권순우 성도, 손자 : 권신우(JCS)
- (소천) 박보연 집사 시부상 손주 : 오서아, 오예성(JTS)
- (소천) 김은자 집사 모친상 사위 : 이시우 성도
- (소천) 장기미 성도 모친상
- (소천) 남태순 성도 시부상 손녀 : 박민선 성도, 증손 : 김하민, 김나은(JKS)

▶ 1부 예배

동백/청덕방향 45인승버스 조은봉 010-9757-1503	광도방향 25인승버스 조윤호 010-5259-9037	수지방향 12인승 스타렉스 문창걸 010-4870-8346	죽전방향 11인승 스타렉스 박규명 010-2882-6700
백현마을 주공 7단지 정문 08:10	광도와이드빌 버스정류장 08:25	도당마을 주공 8단지 08:15	수지 진산마을 삼성래미안 08:15
호수마을 동백 중학교 후문 08:13	신일아파트 버스정류장 08:30	대지중학교 08:20	보정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08:25
물푸레 9단지 정문 1 08:18	교회 주차장 08:35	마북 칼빈대 버스정류장 08:30	꽃매마을 현대 홈타운 08:28
물푸레 9단지 정문 2 08:21		교회 주차장 08:40	교회 주차장 08:42
물푸레 2단지 정문 08:25			
물푸레 1단지 버스정류장 08:30			
신일아파트 버스정류장 08:35			
교회 주차장 08:40			

▶ 2부 예배

동백/청덕방향 45인승 버스 조은봉 010-9757-1503	신갈 방향 11인승 스타렉스 오유성 010-5153-3138
초당마을 주공 3단지 정문 10:30	신갈 교현마을 에센스빌 아파트 10:20
백현마을 한라비빌디 정문 10:40	신갈역 1번 출구 10:25
백현중학교 버스정류장 10:43	교회 주차장 10:35
백현마을 주공 7단지 정문 10:45	
호수마을 동백중학교 후문 10:47	
호수마을 자연대시앙 버스정류장 10:50	
물푸레마을 9단지 정문 1 10:53	
물푸레마을 9단지 정문 2 10:55	
물푸레마을 2단지 정문 10:58	
물푸레마을 1단지 버스정류장 11:00	
신일아파트 버스정류장 11:05	
교회 주차장 11:10	

- 도로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탑승하시기 5분 전에 나와 계시면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차량부 각 운행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귀가차량

1부예배 후 15분 후(25인승 버스,스타렉스) - 교회 주차장 출발(청덕/동백)
2부예배 후 15분 후(25인승 버스) - 교회 주차장 출발(청덕)

▶ 교회 일꾼 및 후원

담임목사	정 의 호 목사
사역자	손인규 목사(MTC), 김용식 목사(JYC), 김민성 목사(JTS), 이현미 전도사(JUC), 정희준 전도사(JTS), 광상경 전도사(영성), 최세호 전도사(MTC), 신명환 전도사(주일학교), 김태진 전도사
기쁨의교회 NETWORK	제자교회(O국) / * * 교회(O국)
파송 선교사	정바나바 · 박마리아(O국)
후원 선교사	김생기(O국) / 김성훈(GBT) / 김영길(O국) / 김진준(O국) / 라원준(뉴자이언 공동체) / 박정미(O국) / 손석우(O국) / 송종록(미주) / 신정화(O국) / 안순자(O국) / 양국직(멕시코) / 왕윤성(O국) / 이창호(피지) / 일본복음선교회(JEM) / 임광신학교(O국) / 임채정(O국) / 정익모(O국) / 정철웅(알타인 선교회) / 정해경(O국) / 조이스정(O국) / 황광인(탄자니아) / O국 목회자모임 / JGC교회(가나)
국내선교	CTS / CTS 경기남부 / 극동방송 / 영동극동방송 / (재)대한성서공회 / 동반연 / 선교한국 / 성경과 사람들 교회 / ㈜월간목회 / 에스더기도운동본부 / 기독교학술원

주일에배

손서중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 동시통역은 1부(영어), 2부(중국어) 예배시 있습니다.

1부 예배 : 오전 9시 / 2부 예배 : 오전 11시 30분
인도 : 손인규 목사

◆◆ 예배 중에는 이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배와 찬양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교독	다	같	이
성경	 사도행전 16장 25-34절	다	같	이
목회기도		인	도	자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인	도	자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다	같	이
헌금	 [헌금특송 : 야고보팀]	다	같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고		인	도	자
※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	같	이
※ 축도		인	도	자

주간 정기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쉐키나채플)	유아부 (30개월~5세)	주일 오전 9:00 (드림센터1)
	2부	오전 11:30 (쉐키나채플)	유치부 (6~7세)	주일 오전 9:00 (드림센터3)
	MTC	오전 9:00 (MTC세미나실)	유년부 (초1~2)	주일 오전 9:00 (코리채플)
셀예배	수요일	각 셀별 장소 (각 셀별)	초등부 (초3~4)	주일 오전 9:00 (비전채플)
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12:00 (카라센터)	소년부 (초5~6)	주일 오전 9:00 (카라센터)
청년부(JYC)예배	주일	오후 2:30 (비전채플)	중등부	주일 오전 11:20 (비전채플)
			고등부	주일 오전 11:20 (카라센터)
			사랑채플	주일 오전 9:00 (만나눔)

주간 정기 기도회			정기 양육 프로그램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쉐키나채플)	제자훈련 프로그램	주일	오후시간
금요HR예배	금요일	오후 8:30 (쉐키나채플)	중보기도학교	5주간	화요일 (비전채플)
화요중보기도(교회)	화요일	오전 10:00 (쉐키나채플)	우리교회 일꾼세우기	5주간	오후 2:30 (비전채플)
화요중보기도(목회자)	화요일	오후 8:30 (쉐키나채플)	컴(Come)	4주간	오후 2:30 (쉐키나채플)
토요예배중보기도	토요일	오후 8:00 (쉐키나채플)	가정사역 세미나	연1회	주일,토요일 (비전채플)
			결혼 예비학교	연1회	주일,토요일 (비전채플)
			한글학교	주일	오후 2:00 (카라센터)

※자모실 장소 안내 : 1부 / 2부 - 4층 자모실, 2층 새부대실, 지하 이레실
4층 자모실(품안에 있는 아이), 2층 새부대실, 지하 이레실(걸어다니는 아이)